

南北韓間 協力增進 戰略에 관한 研究： 게임理論과 레짐分析을 中心으로

吳 在 玩*

◁ 目 次 ▷

- | | |
|----------------------|----------------------|
| I. 序 論 | 戰略的 選擇指針 |
| II. 國際協力에 관한 理論과 實際 | IV. 結論：協力理論 및 戰略의 南北 |
| III. 協力增進을 위한 基本戰略 및 | 關係 適用時 考慮事項 |

I. 序 論

남북한 관계는 국제법에 기초한 국가관계라기 보다는 민족내부관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존재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民族內部の 特殊關係라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남북간 협력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一般的 規範體系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국가들간의 국제협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간 협력을 유도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적 분석 「틀」에서 論究될 수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諸理論은 국가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간의 因果關係에 관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들은 첫째, 中央權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威 및 機構가 不在한 국가간 관계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또한 어떤 조건들이 국가간의 협력을 阻害하는가? 둘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제기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남북한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本 研究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즉 남북한간의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협력을 促進 또는 阻害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채택·구사하여야 하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本 연구에서는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一般理論을 기초로 하여 남북간 협력의 기본 「틀」을 설정한 다음, 남북간 협력을 유도·증진할 수 있는 基本전략 및 전략적 선택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國際協力에 관한 理論과 實際

1. 國際協力の 意味와 協力類型

가. 협력의 개념정의

協力이란 一方 행위자가 정책조정 과정을 통하여 他方の 실제적인 選好 또는 기대되는 선호에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책조정이란 一方의 정책이 他方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정책을 調整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즉, 협력은 相衡的인 이익과 補完的인 이익이 혼합된 상황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相互利益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조정을 뜻한다. 이 점에서 雙方利益의 완벽한 일치에 따라 의도적인 정책조정이 불필요한 調和(harmony)

1)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51~2.

와 협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²⁾

협력의 개념과 대조되는 것으로 一方的 行爲(unilateral behaviours)와 不作爲 行爲(inactivity)가 있는데, 부작위 행위란 비록 타방의 이득을 줄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책이 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非協力的 行爲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³⁾ 따라서 협력이란 모든 행위 참가자들간의 상호 정책조정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目的 指向的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협력은 두가지 중요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각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협력이란 행위자에게 利得 또는 報償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각 행위자의 협력행위는 합리적인 것이며, 협력에 따른 이득은 相互的이라는 것이다.

나. 협력의 유형 및 사례

국가간의 협력은 默示的 方法, 협상 및 강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默示的 協力(implicit cooperation)은 의사소통 또는 명시적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도 발생하는 협력으로 이 경우 협력적 행위는 실제로 행위자의 기대가 묵시적으로 수렴됨에 따라 출현하게 된다. 협상에 의한 협력(bargained cooperation)은 명시적인 교섭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강요에 의해 부과된 협력(imposed cooperation)은 一方이 他方에게 일방적으로 賦課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는 強者가 弱者로 하여금 정책을 변경하도록 強制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협력유형은 협상에 의한 협력으로서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集合的

2)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Hypothese and Strategy,"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6.

3)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 Strengths and Weaknesses" (Review Article), *World Politics* 44 (April 1992), p.468.

4) *Ibid.*, p. 469.

問題解決 과정은 경쟁적 흥정 및 이익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政治過程”에 다름 아니며 특히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⁵⁾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調整·協力·調和·提携·並行的 行動過程 등의 협력양식이 활용되고 있다.⁶⁾

(1) 조정(co-ordination) : 조정이란 특정 정책분야에서 법적 또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정책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정행위는 행위자들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합의된 방향에서 정책을 조정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완결되는 것이다.⁷⁾

(2) 협력(co-operation) : 협력이란 범위나 기간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미리 결정된 특정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동사업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狹義의 협력행위는 調整의 경우보다 구체적이지만 調和보다는 범위(scope)에 있어 제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협력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協商·仲介·仲裁·調停·周旋 등이 이용되고 있다.⁸⁾

(3) 조화(harmonization) : 조화란 개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통의 정보, 공통의 해석 및 관련된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相互利益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조화는 협력보다는 광범위하지만 政策的 含意라는 측면에서는 조정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調和導出행위는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통의 원칙, 즉 협약(conventions)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⁹⁾

5) William D. Copli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Chicago :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71), p. 252, pp. 253~55.

6) Paul Tayler, “A conceptual typolog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Frame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ondon : Pinter Publishers, 1990), chap. 2.

7) Paul Tayler,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op. cit.*, p. 29.

8) Paul Tayler, “A conceptual typolog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p. 14.

9) Mihaly Simai, “Co-operation : the CMEA experience,”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op. cit.*, pp. 57~62.

(4) 제휴(association) : 제휴에는 국가간의 제휴와 국가를 一方으로 하고 정부간 국제기구를 다른 一方으로 하는 제휴가 있는데, EC가입 이전의 그리스와 터키의 EC와의 관계, 영연방 회원국가간의 관계, 그리고 비동맹회의 국가간의 관계가 대표적인 제휴에 의한 협력사례이다.

(5) 병행적 국가행동과정(parallel national action process) : 병행적 국가행동 과정이란 '문제제기·조사연구·심의·제안권고' 등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각 단계의 성격에 부합하는 회의의 소집을 통하여 협력적 합의를 도출하며, 개별국가들은 합의된 사항을 同一한 法律 및 規則을 채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행·실천하는 협력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양식의 협력은 주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諸國간의 협력관계(이른바 Nordic Council)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지역적인 정치적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행적 행위과정의 축적은 통합적 행동규범을 발전시키며 공동활동의 영역과 강도를 통합네트워크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병행적 국가행동과정을 근간으로 하는 노르딕협력체제는 지역국가간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域內의 자원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域內 국가들간의 사회적 조건들을 均等化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域外관계 및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역내국가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¹⁰⁾

다. 남북한간 협력양식 모색에의 示唆點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간의 협력유형은 협상에 의한 협력을 의미하며, 調整·協力·調和 등이 주요한 협력양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간 합의사항의 실천방안은 각기의 협력양식의 諸技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의

10) Gunnar Nielsson, "The parallel national action process," A.J.R. Groom and Paul Taylor eds., *op.cit.*, pp. 78~108.

協力政策은 남북관계의 구체적 발전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 적합한 최적의 협력유형 및 협력양식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調整의 技法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연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 현황을 연례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보고서를 남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장기적인 협력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다. 또한, 調和를 도출하기 위한 技法 즉, 공동조사와 연구 그리고 국가 고위관리간의 상호교차심문(mutual cross-examination)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한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並行的 國家行動 등의 협력양식은 南北聯合의 단계에서나 모색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교류·협력이 확대·심화된 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예로서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의 문제제기와 조사연구 그리고 심의를 거쳐 남북한 양정부에 대책을 권고하여 채택케 하는 시범적인 並行的 行動過程이 고려될 수 있다.

2. 國際協力에 관한 諸理論 및 研究現況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면서 촉진되었다. 국제협력을 설명하는 이론 및 분석방법은 국제행위 주체에 관한 分析單位의 차이에 따라 현실주의(또는 신현실주의) 시각과 다원주의 시각(특히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¹¹⁾

가. 현실주의적 분석시각 : 게임이론

현실주의적 시각은 세계정치의 주요 行爲主體가 主權國家이며 국가의 選好는 독립적인 것이며, 국제적 무정부 상태로부터의 궁극적인 탈출은 불가

11) 비오티(Paul R. Viotti)는 국제관계에 대한 3가지 대안적 이미지로서 현실주의, 다원주의 및 세계주의 등으로 국제관계 이론 및 접근시각을 분류하고 있다.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p. 1~9.

능하다는 가정 위에서 국가간의 이기적인 협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악셀로드(Robert Axelrod), 오이에(Kenneth A.Oye), 스나이달(Duncan Snidal) 등은 게임이론과 微視經濟이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제협력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에서의 협력의 정도·원인 및 전망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촉진시켜 주며, 두 분야간에 유용한 개념의 移轉을 촉진시켜 다양한 설명과 처방을 제시해 주고 있다.¹²⁾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협력이론은 得失構造(국가의 選好構造), 미래의 이익(또는 게임의 반복성) 및 참가자의 數 등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 한편 협력을 유도 증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 가설로 요약되고 있다.

(1) 상응성에 관한 가설

개별행위자들의 행동동기, 즉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協力發生 및 誘導條件에 대한 상이한 설명 및 처방이 제시된다.

악셀로드는 개별국가들이 純利益(즉 절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계에서 개별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을 얻기 위해 應報的 接近方法(Tit-for-Tat approach)을 구사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간의 相互協力を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相應戰略(strategy of reciprocity)은 개별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의 세계에서 자신의 절대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¹³⁾

반면에 그리에코(Joseph Grieco)는 국가들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절대적 이익을 他方의 절대적 이익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인 相對的 이익을 추구하며, 개별국가들이 상대적 이익을 추구할수록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익의 균형배분 또는 균형교환'이 협력을

12) Kenneth A. Oye, *op.cit.*, pp. 1~3.

13) H. Milner, *op.cit.*, pp. 481~82.

촉진시키는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균형교환(또는 互惠的 교환)이란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익을 균등하게, 또는 어떤 가치들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셀로드의 等價交換 및 應報概念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즉 개별행위자들의 동기가 절대적 이득추구에 있든 아니면 상대적 이득 추구에 있든간에 관계없이 상응성이 있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同一하다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상응성은 협력발생의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에, 협력유도 및 증진전략은 상응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초점이 두어지게 된다.

(2) 參加者 數에 관한 가설

협력은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한 機會 捕捉과 함께 정책조정을 요구하는데 참가자 數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협력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첫째, 공동이익의 발견과 실현이 어렵고, 둘째, 위반 가능성과 異質性이 증대되어 행위에 관한 인식 및 통제가 힘들고 위반행위에 대한 制裁 가능성도 감소하며, 셋째, 集團的 制裁 措置가 발동되더라도 無賃乘車者가 발생하여 제재효과가 감소한다. 이런 견지에서 국가간의 협력은 다자간 협력구조에서 보다는 양자간 협력구조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¹⁶⁾

그러나 참가자 數의 증가가 交換 및 副利得(side-payment)¹⁷⁾ 제공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때문에 협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4) Joseph Grieco, *Cooperation among Nation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47~8, p. 482.

15) Helen Milner, *op.cit.*, p. 472. 等價性의 결여는 他方의 전략에 대한 誤判을 유발하여 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협력은 好惡에 대한 대략적인 等價的 價値 交換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헨은 국가간 협력관계의 붕괴란 等價 交換에 기초한 互惠的 合意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obert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Winter 1986), pp. 4~5.

16) 다자간 게임에 있어 조건부 배반전략인 응보전략은 違反行爲를 억제하기 보다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력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K. Oye, *op. cit.*, p. 18.

17) 副利得에는 어떤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자기의 結탁(coalition)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주는 뇌물의 형태가 있으며, 結탁의 결과 더많은 이득을 받게될 때 분배되는 보너스의 형태가 있다. 박순달, 「게임이론」(서울: 대영사, 1982), p. 204.

더욱이 弱小國家들은 強大國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자들간의 結託을 통해 강대국을 견제하기에 보다 용이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⁸⁾

따라서 참가자 수의 문제는 협력발생의 구조적 조건이라기 보다는 조작 가능한 전략적 조건이 된다.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코헨(R. Keohane) 등 기능주의적 레짐분석가들은 국제레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오이에(K. Oye) 등 수시적 흥정에 대한 분석가들은 보다 많은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全體利益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특정문제와 관련된 상호이익을 보다 확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참가자를 쌍무적 및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참가자 수를 협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 반복성(iteration)에 관한 가설

협력 가능성은 게임(즉 관계)이 반복될수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期待價値가 클수록 증대된다. 따라서 협력증진 전략은 바로 관계의 반복성과 미래이익의 가치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이익의 가치를 확대하는 전략은 ① 장기간에 걸쳐 미래이익을 분산시켜 협력관계의 지속성 및 利害關係의 규칙성을 강화하고, ② 상대방 행위에 관한 정보의 신빙성을 제고하며, ③ 상대방의 행위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對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다원주의적 분석시각 : 국제레짐 이론

레짐이론은 현실주의적 시각이 상호의존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적 국제기구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출발하여 국제조직·국제레짐·

18) J. Grieco, *op.cit.*, p. 228. 스나이달에 따르면, 행위자 수의 증가는 同盟 形成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弱者에게는 보다 유리하며, 또한 협력의 장애요소가 되는 개별행위자들의 상대적 이익 추구 동기도 多者間 關係에서 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uncan Snidal,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PSR* 85(September 1981), p. 716.

관습·동맹 등 “제도화”된 국제행위에 연구초점을 맞추는 대안적인 시도로 발전하였다.¹⁹⁾ 특히 新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시각은 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호이익이 존재하지만 개별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最適의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때, 제도화 정도의 차이가 국가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서 국제협력의 조건을 규명하고 있다.²⁰⁾

여기서 制度란 행위역할을 규정하고 행동을 강제하며 기대를 형성시켜 주는 지속적이고 연관된 공식 및 비공식의 규칙체제로 정의되며, 제도화 과정은 「국제관습→국제레짐→국제조직」의 발전방향으로 전개된다.²¹⁾

國際制度化的 2번째 단계에 있는 국제레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국제레짐은²²⁾ ① 레짐의 원칙을 위반하려는 동기를 축소시켜 합의의 強制를 지원하고, ② 他方の 행위(즉 기만 행위인가 준수행위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③ 특정분야에서의 레짐은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즉 去

19) 레짐분석은 국제사회의 개념과 규범 지배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를 핵심적 행위자로 보고 있으며, 레짐을 국가이익의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新 현실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Roger Tooze, “Regim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J.R. Groom and Paul Tayler eds., pp. 203~8.

20)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p. 2~3, pp. 13~18.

21) 여기서 국제조직이란 공식적 정부간 조직 또는 초국가적인 비정부적 조직을 말하며, 국제레짐은 관습이 成文化된 것으로 국가에 의해 협상된 명시적 규칙을 갖는 제도라고 정의되며 「협상에 의한 질서」를 구성한다. 한편, 관습(conventions)은 암묵적인 규칙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의 기대를 형성시켜 주는 비공식적 제도로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명시적인 규칙 없이도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도록 해준다. 관습은 調整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에서 관습은 영(O.Young)의 용어에 의하면 「自然發生的 秩序」가 되며 상용성도 관습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국제조직과 레짐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다. *Ibid.*, pp.4~5.

22) 여기서 廣義의 국제레짐이란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또는 정책결정의 절차를 의미하며, 狹義의 국제레짐이란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따른 국가간 정책조정 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제적 체제(international arrangement)를 의미한다.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S.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來費用을 줄여주어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³⁾ 이러한 레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국가들의 행위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他方이 이탈할 것이라는 의심은 물론 그에 따른 자신의 離脫 性向을 축소시켜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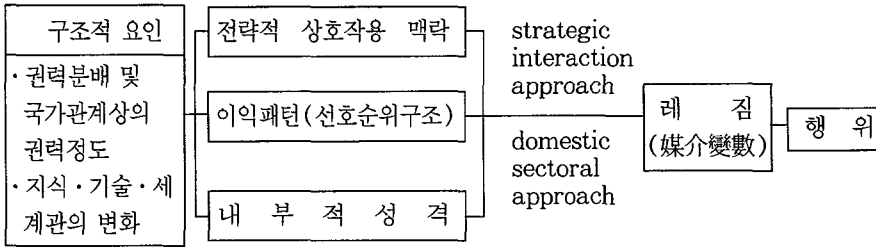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레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분석 시각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인 구조적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스트레인지(Susan Strange) 등은 이기적 국가이익과 정치권력이라는 기본요인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며 從屬變數에 불과한 국제레짐이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홉킨스(Raymond Hopkins), 푸찰라(Donald Puchala), 영(Oran Young) 등의 이른바 그로티우스적 전통(Grotian tradition)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권력과 이익이라는 기본요인이 국가의 행위는 물론 국제레짐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지만, 국제레짐도 국가의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獨立變數로 취급하고 있다.

코헨(Robert O. Keohane), 스타인(Arthur A. Stein) 등은 권력분배·지식·기술·세계관 등 구조적 요인이 국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제레짐은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非零和 게임」(non-zero-sum game)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정책형성으로 인하여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국제레짐을 媒介變數(intervening variable)로 취급하고 있다 (표 1 참조).

코헨은 국제행위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은 참가자에 의해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규범 또는 제도라는 脈絡에서 발생하며, 개별국가의 행위는 국제정치의 제도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제도는

23) 레짐은 問題連繫 및 副利得 提供을 통해 협력의 費用 및 惠澤의 均衡配分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서 均衡된 合意를 導出하기 위한 협상을 지원한다. 또한 特定分野에서의 기존의 레짐은 새로운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組織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즉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R. O. Keohane, *op.cit.*, p.91; P. Haas, *op.cit.*, p.79.

〈표 1〉 Arthur A. Stein의 접근사각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행동동기를 변경시키기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와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코헨의 분석방법은 게임이론적 전략이론과 국제레짐의 이론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코헨은 이 두가지 접근방법을 결합한 기능주의적인 국제레짐 이론을 발전시켜 2차대전후의 국제정치경제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²⁴⁾

한편,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는 국제레짐은 국가의 행위 뿐 아니라,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국제레짐을 하나의 自律的 變數(autonomous variable)로 파악하고 있다. 즉 국제레짐은 ① 이익의 계산 및 이익극대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키며, ② 이익자체 또는 이익에 대한 理解를 변경시켜 새로운 행위, 즉 국제협력을 유도하며, ③ 弱者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견지에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④ 국가를 포함하여 레짐에 참가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權力可用力(power capabilities)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⁵⁾

24) Robert Axelrod and Robert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p. 228~38, pp. 252~53.

25) Stephen D.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p. 361~67.

다. 협력이론의 유용성 및 한계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제협력 연구는 첫째, 협력의 개념정의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둘째,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국가간의 관계를 體系的 水準에서 모델화함으로써 협력발생의 조건에 관한 가설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다. 특히 게임이론은 개별국가들의 選好·戰略·得失 등을 정확하게 모델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예측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간의 협력현상에 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로 兩者關係에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국내정치 과정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협력을 이해하는데 있어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이유는 첫째, 국내정치는 選好가 집약되고 국가이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둘째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전략이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셋째로 국가간의 협력적 합의를 완성시키는 최후의 조치는 국내정치의 행위자들이 국제적으로 협상된 조건들을 준수하기로 동의, 즉 批准·發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⁶⁾

한편, 국제레짐의 기능·역할·생성 및 소멸에 관한 諸視角의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레짐 분석방법은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국제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을 설명하는 가운데 협력의 조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고 있다. 레짐분석은 특히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형성 즉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국제레짐이론은 국제적 제도화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자간 협력 「틀」 속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유도·증진할 수

26) 이 밖에도 게임理論은 相互作用의 脈絡, 政策決定者의 個性 및 行爲에 대한 洞察, 외교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理解와 관련된 歷史的 事實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적 도구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Duncan Snidal, "The Gam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 26.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레짐분석은 레짐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협력결정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전의 협력교섭과 이를 둘러싼 정치과정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크래스너는 레짐분석이 정보제공, 去來費用 構造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나 권력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⁷⁾

이상과 같은 게임이론과 레짐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의 협력을 促進 또는 沮害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즉 국제협력에 대한 이론과 전략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간의 협력을 유도·증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基本戰略 및 政策的 代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실상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당국간 협상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한간 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주권독립체로서의 양측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간 국제협력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이 활성화되고, 특히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정부 이외의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는데는 현실주의 시각과 다원주의 시각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 이론 「틀」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게임이론과 국제레짐이론의 연구성과를 援用하여 남북한간의 협력을 유도·증진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의 특수상황에 적합한 종합적인 분석 「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7) Stephen D. Krasner, "Global Communications and National Power : Life on the Pareto Frontier," *World Politics* 43 (April 1991), p. 366.

III. 協力增進을 위한 基本戰略 및 戰略的 選擇指針

1. 협력증진을 위한 기본전략 : 應報戰略

국제협력에 관한 諸理論은 분석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발생시키는 핵심적 요소는 상응성(reciprocity)이러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상응성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키는 방법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게임이론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별국가들간의 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눈에는 눈’ (TIT FOR TAT) 전략(이하 응보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레짐이론은 상응성의 효력을 증대시키고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서 국제레짐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증진을 위한 기본전략은 상응성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應報戰略으로 귀결된다.²⁸⁾

응보전략은 일단 협력행위로 시작하여 만일 다른 행위자가 이탈행위를 한다면 보복한다는 「先 협력, 後 보복」의 상응성을 확립함으로써 상대방의 非협력적 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협력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²⁹⁾ 이러한 응보전략은 불필요한 분규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며, 상대방의 불필요한 離脫行爲를 응징함으로써 이탈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징 이후에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상호협력의 회복을 도와 주며, 행위의 명백성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유인한다.

그러나 응보전략은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으며, 먼저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상응한 행위로서 대응한다는 원칙에 입각

28) Robert Axelrod and Robert O. Keohane, *op.cit.*, p. 244.

29) Kenneth A. Oye, *op.cit.*, pp. 1~2.

30)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

하여 구사되어야만 협력을 유도하는데 효력을 갖는다.³⁰⁾

또한, 응보전략은 게임이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得失構造와 협력의 의미 등과 같은 핵심적 요소에 대해 참가자 사이에 공통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不和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만과 설득을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의사소통 과정은 게임을 非協力的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보다 더욱 추악한 게임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응성의 혜택에 관한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³¹⁾

따라서 응보전략은 ① 경기참가자는 배반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배반자에 대해 보복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③ 배반자를 처벌하려는 충분한 장기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야만 협력을 유도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2. 협력유도 및 증진을 위한 전략적 선택

국가간 협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 상응전략 및 득실구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協力誘導 및 增進 戰略은 ① 득실구조의 변경, ② 미래이익의 확대, ③ 협력행위를 유발하는 환경 및 조건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즉, 협력은 상호작용의 持續性 및 頻度의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빈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득실구조를 변경하여 미래이익을 확대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치, 사실 및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³²⁾

가. 得失構造의 變更

득실구조의 변경, 즉 得失差異의 변경은 이익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협력동기를 확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행위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협력

lishers, 1984), pp. 27~54, pp. 126~32.

31) 응보전략은 이른바 “메아리 效果”, “협상의 膠着” 및 “쟁점 상호의존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응보전략의 구사는 갈등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 Helen Milner, *op.cit.*, p.482.

32) Robert Axelrod, *op.cit.*, pp.124~41.

행위를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득실구조의 변경은 득실구조(즉 국가적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 즉, 이념적 및 인지적 요인 국제 구조적 요인 국내구조적 요인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일방적 쌍무적 및 다자적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일방적 전략 : 이 전략의 핵심은 득실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또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했을 때 입게 되는 손해)을 줄임으로써 상대방으로 부터 협력적 행위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이러한 전략의 實例로서 武器調達政策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어느 一方이 공격무기 보다는 방어무기구입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기습공격의 이득을 줄이는 한편 그러한 행위를 통해 기습공격에 대한 상대방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공격형 무기의 상호억제 및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방적 전략의 또다른 예로는 人質로서의 軍隊의 海外駐屯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전략은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³³⁾

(2) 쌍무적 전략 : 이 전략은 問題連繫의 방식으로 별개의 상이한 게임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득실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다. 특히 “學習的”(instructional) 雙務戰略은 행위와 결과간의 因果關係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변경시켜 이익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협력행위를 유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例로서 미국의 「전략무기제한 협정」(SALT I) 협상참가자들은 협상타결을 위해 소련측 상대에게 「保障된 共滅」(MAD) 전략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3) 다자적 전략 : 주로 국제레짐을 이용하여 레짐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을 개별국가들에게 內在化시키거나, 또는 레짐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이익에 대한 理解를 변경시킬 수 있다. 하스(Ernst Haas)는 새로 형성된 레짐은 이전에는 이해되지 못한 因果關係

33) Kenneth A. Oye, *op. cit.*, pp. 9~11.

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배포하여 목적과 수단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이익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나. 미래이익의 확대

미래이익의 확대가 협력을 증진한다는 命題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① 게임의 반복은 협력을 증진한다. ② 반복게임하에서 응보전략은 협력을 증진시킨다. ③ 응보전략의 효력(응보전략의 핵심적 요소인 상응성의 효력)은 게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게임의 조건이란 협력과 이탈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이 하는대로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게임의 반복성 증대, 즉 상호작용을 더욱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이익을 확대시켜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1) 문제의 단계별 세분화 : 문제의 단계별 세분화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강화시켜 응보전략의 상응성 효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협력이익의 분산은 利害關係의 규칙성과 그에 따른 협력관계의 지속성을 강화시켜 주는 한편, 상대방 행위에 관한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주어 상대방의 행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점진적인 실천단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것은 협력관계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행위에 대한 檢證의 효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³⁵⁾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은 一回的이고 斷片的인 사업보다는 가능한 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2) 문제연계 : 이 전략은 一回게임으로 끝나는 특정문제에 다른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一回게임에 반복성의 요소를 투입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문제연계 전략은 一回로 끝나는 게임에서 취한 행위가 가

34) *Ibid.*, p. 11.

35) Robert Axelrod, *op. cit.*, pp. 126~32.

져다 주는 이득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에서 얻을 得失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一回게임에서 협력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3) 국제제도의 활용 : 국제제도는 참가자들의 기대를 집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의 미래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제제도는 A라는 행위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현재의 행위가 장래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 B라는 다른 행위자들이 취할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레짐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주는 교량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³⁷⁾

다. 상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협력은 상응성과 상호작용의 원리에 의하여 敵對關係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상응성에 기초하여 정착된 협력은 안정성을 갖게 된다. 또한 상응성은 衡平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도 무조건적인 협력 보다 도덕적으로 타당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응성은 협력발생의 필수조건이 되며, 기타 요소들은 협력촉진에 있어 부차적 조건이 된다.³⁸⁾

따라서 상응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學習過程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바로 협력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상응성에 기초한 相互報償 戰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협력발전과정을 촉진하는 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상응성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북한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學習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의 강화

옹보전략은 상응성의 효력이 발생할 때 공동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

36) K.A.Oye, *op.cit.*, p. 17.

37) Axelrod & Keohane, *op.cit.*, pp. 232~34.

38) Robert Axelrod, *op. cit.*, pp. 136~39, pp. 169~70.

킬 수 있으며, 상응성의 효력은 상대방의 행위가 협력행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인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협력과 이탈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② 모든 행위자의 행위를 투명하게 하여 誤知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③ 상황을 명료하게 정의하여 행위자의 협력행위와 이탈행위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④ 행위자의 數를 한정시켜 통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해야만 한다.³⁹⁾

국가정상간의 회담은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⁴⁰⁾ 또한, 국제레짐도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 국제레짐의 활용

국제레짐은 협력발생의 필수조건이 되는 상응성의 代替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응성의 규범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를 불법화하고 그 대가를 증대시켜 상응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요컨대, 국제레짐은 협력의 필수조건인 상응성의 효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개별국가들의 상응성과 국제레짐기능의 적절한 결합은 협력을 증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⁴¹⁾

국제레짐은 ① 규범의 명확한 成文化를 통해 행위에 관한 定義上의 모호성을 제거하며, ② 협력적 행위와 비협력적 행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③ 감독규정을 마련하여 행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레짐은 식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의체는 남북한간의 협력을 증

39) K.A. Oye, *op.cit.*, p. 15.

40) Axelrod & Keohane, *op.cit.*, pp. 247~48.

41) Kenneth A. Oye, *op. cit.*, p. 24.

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레짐의 制裁機能은 남북한간 협력의 保障性과 強度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협력유도 및 증진을 위한 전략

區 分	目 標	主要內容	主要戰略 및 細部方案
得失構造의 變更	게임의 득실차이를 변경하여 이익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협력행위를 유도함	득실구조(選好)를 결정하는 이념적 및 인지적 요인, 국제구조적 요인, 국내구조적 요인을 변경함.	일방적 전략 쌍무적 전략 - 문제연계 및 副利得 제공 - 학습적 쌍무전략 다자적 전략 - 기존 국제레짐의 활용 - 새로운 레짐의 창출
未來利益 擴大	현재의 협력행위에 따른 미래이익을 증대하여 협력 유인동기를 확대하고 협력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함.	협력이익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협력관계의 지속성 및 이해관계의 규칙성을 증대하고, 행위에 대한 정보의 신빙성 및 상대방의 행위변화에 따라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	- 위계질서 확립 - 문제의 단계별 세분화 - 문제연계 - 국제레짐의 활용
協力環境 및 條件의 構成	행위식별, 통제 및 제재능력 강화	행위에 대한 식별능력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능성을 제고하여 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킴	참가자수 제한 - 쌍무적 분산 - 지역적 분산 국제레짐의 활용

〈표 3〉 협력증진을 위한 諸戰略의 長·短點 비교

區 分	戰略的 選擇	期待效果	問題點
一 方 的 戰 略 (unilater- alism)	일방적인 협력 주도 권 행사	·독실구조의 변경 등을 통한 협력분 위기 및 상호신뢰 구축	·일방의 양보가 상 대방에게 무조건적 인 것으로 받아들 여 지거나 이용당 할 취약성을 증대 시킴. ·협력에 따른 독실 의 불균형 배분은 세력균형을 변경시 킬 수 있음.
雙 務 的 戰 略 (bilatera- lism)	문제연계 학습적 쌍무전략 문제의 단계별 세분 화	·독실구조의 변경 ·미래이익의 확대 ·상용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을 통한 부문별 균 형발전 도모	·연계전략은 zero- sum-game 상황에 서는 갈등을 심화 시키며 non-zero- sum-game 상황에 서도 이전의 합의 를 깨뜨리는 역효 과를 초래할 수 있 음.
多 者 的 戰 略 (multilat- eralism)	국제레짐 활용	·독실구조의 변경 ·미래이익의 확대 ·인식능력의 강화 ·제재문제의 해결 등을 통해 협력의 보강성 및 강도증 대 ·주변지역국가를 포 함 전체이익 증대	·참가자수의 증대에 따른 공동이익의 발견 및 실현이 어 려움 ·행위식별 및 제재 문제 초래 ·무임승차자 발생

IV. 結 論 : 協力理論 및 戰略의 南北關係 適用時 考慮事項

응보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상응성 제고를 통해 협력을 유도·증진하려는 전략적 선택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得失構造, 未來利益 및 相應性 등을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위의 3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構造(또는 脈絡)를 변경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전략 및 전략적 선택지침에 따라 협력증진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협력이 유도되거나 증진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一方的 措置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져 기대했던 상응성 효과를 유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逆效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남북한간의 협력은 협력에 따른 비용과 이득의 均等配分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제연계 전략은 협력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분야에서 既存의 협력을 붕괴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다. 따라서 戰術的 問題連繫는 因果關係에 관한 知識에서 도출되는 實在的인 문제연계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체제전복을 통한 對南 赤化戰略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문제연계 전략의 구사는 부문간의 均衡發展을 도모하면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셋째,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협상과정에서 다자간 협상「틀」을 활용하는 것은 남북 이외의 참가자에게 自國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북한간의 공동이익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방식으로 다자간 협상「틀」을

채택하는 것과 남북간 협상의 결과를 이행·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레짐을 활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결과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협력적 행위규범이 지배하는 화해와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응성의 원칙에 입각한 對北정책의 견지와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측의 지속적이고도 일방적인 협력적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된다. 그러나 주도적인 對北協力政策의 실행은 우리의 主體的 力量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實情에 맞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能力이 뒷받침되지 못한 일방적인 협력정책은 북한으로부터 相應한 협력적 조치를 誘引하는데 限界를 가질 뿐만 아니라, 不均等 交換의 持續은 남북한간 힘의 關係의 변화만을 초래하여 장기적인 협력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plaining and Achiev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ypotheses and Strategies

Jae Wan Oh, Ph. D. (RINU)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both explanatory and prescriptive aspects of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given the “limited reciprocity regime” govern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which high levels of policy inertia with weaker reciprocity prevail, what are the circumstances that would favor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Second, what strategies can the two Korean states adopt to foster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by altering the circumstances they are in?

Recent work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shown that the following three circumstantial dimensions serve both as an explanation of cooperation and a target of strategies to promote cooperation.

1. *Payoff structure: Mutual and Conflictual Preferences.*
2. *Shadow of the Future: Single-play and Iterated Games.*
3. *Number of Players: Two-Person and N-Person Games.*

The above-stated three dimensions help us to understand successes and failures of attempts at cooperation in both military-security and political-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m, we can derive optimal strategies to promote cooperation by altering payoffs, lengthening the shadow of the future, and reducing the number of the actors necessary to the realization of the common interests. Such strategies are deliberate efforts to change the very structure of the situation by changing the context of the conflictual and cooperative interactions.

The likelihood of cooperation increases by altering payoff structures through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strategies.

1. *Unilateral strategies*. In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Robert Jervis offered specific suggestions for altering payoff structures through unilateral strategies, such as “procurement policy.” Unilateral strategies can improve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by reducing both the cost of being exploited and the gains from exploitation. But in practice, unilateral actions may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one’s vulnerability to exploitation by others.

2. *Bilateral strategies*, most significantly strategies of issue linkage, can be used to alter payoff structures by combining dissimilar games. Furthermore, bilateral “instructional” strategies can aim at altering the other country’s understanding of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nd result in altered perceptions of interest. For example, American negotiators in SALT I sought to instruct their Soviet counterparts on the logic of mutual assured destruction.

3. *Multilateral strategies*, centering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can be used to alter payoff structures in two ways. First, norms generated by regimes may be internalized by states, and thereby alter payoff structure. Second, information generated by regimes may alter states’ understanding of their interests. Some of the problems decision makers would encounter are the following:

1. *how to provide incentives for cooperation so that cooperation would be rewarded over the long run, and defection punished;*
2. *how to monitor behavior so that cooperators and defectors could be identified;*
3. *how to focus rewards on cooperators and retaliation on defectors;*
4. *how to link issues with one another in productive rather than self-defeating ways.*

A fundamental strategic concept in attaining the above objectives is reciprocity. Cooperation in world politics seems to be attained best not by providing benefits unilaterally to others, but by conditional cooperation. Yet reciprocity encounters many problems in practice.

ROK-DPRK relations have been dominated by conflictual behavior norms since the emergence of the two separate regimes, even though both sides agreed to the accord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in this environment, sustained and unilateral cooperative initiatives coupled with strong reciprocity in the inter-Korean policies and a focus on long-term gains, are likely to facilita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deepening process of cooperation may continue to move toward more cooperative norms in the nature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